

기술신용평가 체계 개선 추진현황

2015. 8.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추진 사항 ('15.3분기)	2
1. 기술신용평가 기간 단축	2
가. 평가 제도의 효율화	2
나. 기업의 평가 이해도 제고	4
2. 기술신용평가 신뢰도 제고	6
가. TCB 자체 검수 강화	6
나. 심층평가 제도 도입	8
III. 향후 추진계획 ('15.4분기)	9

I. 추진 배경

지난 6.8. 발표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기술신용평가 업무체계 개선을 추진

- **[성과]**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약 13개월('14.7.~'15.7.) 동안 총 68,581건, 44.2조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공급
 -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39%p 낮은 금리로 4.5억원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 기술신용대출 이용기업(400개)의 82.3%가 “만족”, 96.3%가 “기술금융을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금융 이용실태 및 의견조사」('15.4)

□ **[문제점]** 일반 대출과 달리 기술신용평가라는 생소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간 장기화 및 평가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

- ① **(기간 장기화)** 체계적이지 못한 절차, 기업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 기간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
- * (보완 필요사항) 기간 단축 43%, 기술력 비중 확대 18.0%, TCB전문성 확대 12.5% 등

- ② **(평가 신뢰성)** 평가서 내 오류*, 다양한 평가방식 부재 등으로 기술 신용평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 * 등급과 의견 불일치, 타 자료 단순 복사 첨부, 오탈자 발생 등

➔ **[대응방안]** 기술신용평가 기간의 단축을 위해 평가제도의 효율화 및 기업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접수 강화 및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실시

II. 추진 사항 ('15.3분기)

1 기술신용평가 기간 단축

가. 평가 제도의 효율화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 평가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단축

Ⅰ 우선평가 신청 제도(Fast track) 도입

- **(현황)** TCB 평가는 여신의 성격에 무관하게 선입선출(first-in, first-out) 방식으로 실시되는 구조

- 기술신용평가 기간 장기화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초기 기업 대출의 실시가 함께 지연

* 초기기업 :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이하인 기업

⇒ **(개선)** 초기기업에 대한 표준평가시 은행이 TCB에 요청하는 경우 既신청된 건보다 우선적으로 평가 실시('15.9월부터)

* 각 TCB사의 기술신용평가 신청 홈페이지 '표준평가 신청' 화면에 '우선평가' 항목을 생성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메뉴 관리

- 우선평가 신청시 서류완비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 제공

- 우선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전체 평가대상 기업의 약 20%가 우선평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간 평가기업 중 초기기업 비중 : KED 19.9%, NICE 25.4%, 이크레더블 29.0%

② TCB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

- (현황) 기업의 평가자료 제출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자료완비 후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따라 전체 평가기간이 장기화

⇒ (개선) 신속한 평가업무 진행과 기업의 초기 자료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실사 전 필수자료”를 최소한으로 선정(실시 중)

【현장실사 전 필수자료】

- 기술개요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재무제표(3개년)

※ 기타 평가 전 제출 필요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관련 자료(부동산등기부 등본, 임차계약서), 부가세자료, 기타 기술자료(산업재산권, 인증·수상실적 등) 등

① 현장실사 전 필수 자료

- 기업이 은행에 기제출한 자료(재무제표 등)는 은행이 TCB에 사본을 제공하여 기업의 이중 자료제출 부담 해소
- 각 TCB는 “현장실사 전 필수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바로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

② 평가 전 제출 필요자료

- 현장실사 전 필수자료 외의 “평가 전 제출 필요자료”는 현장 실사시 등 보고서 작성 이전까지 제출
- 평가 대상 기업의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은 TCB가 직접 조회·발급 실시

나. 기업의 평가 관련 이해도 제고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평가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설명을 강화

① 현장실사 전·후 유선 안내(해피콜) 전면 실시

- (현황) TCB별로 유선 안내 실시 여부 및 대상이 상이*하여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한 상황

* (NICE) 모든 기업 대상, (KED) 일부 기업 대상, (이크레더블) 미실시

⇒ (개선) 모든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 현장실사 전·후 유선 안내 실시('15.9월부터)

- (현장실사 전) 평가자, 평가절차, 필요자료,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시기 등을 안내(필요시 평가자가 직접 안내)

- (현장실사 후) 평가자 전문성·성실성·윤리성·부당행위 여부 확인 및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 TCB는 현장실사 후 해피콜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금융위는 실태조사시 해당 내용을 확인

② 현장실사 매뉴얼 제공

- (현황) 기술신용평가 절차 중 특히 현장실사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평가에 대한 불편을 크게 인식

⇒ (개선) 현장실사에 대한 간단한 표준절차 매뉴얼을 은행에 제공 및 영업점에서 활용토록 하여 기업 협조 유도

- 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취급 전에 현장실사를 포함한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 실시(TECH 평가 중 정성평가시 관련 사항 점검)

참 고

현장실사 표준절차 매뉴얼

□ 현장실사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현장실사 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2~3일전 미리 실사일자 협의 및 실사방식 안내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TCB 평가자(실사담당자와 동일 전제)의 성명, 전화번호, 출발지 실사 예상시간, 기업면담자 결정 및 실사현장 실사 전 필수자료 및 제출 미비서류 안내 * 교통편, 식사 등 편의제공 불가 		
현장실사	< 진 행 사 항 >		시간 장소
	【 안내 】	5분	회의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 기본개요 & 실사 방식 소개 	60분	회의실 등
	【 기술 면담 】기술책임자 및 관련 임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개요 · 핵심기술 · 기술성/시장성 등 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및 기술경쟁력 질의 & 답변 ▶ 경영진 경력, 향후 계획 등 확인 ▶ 인력구성(조직도), 재무현황 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 서류 확보 등 		
	【 현장 확인 】현장책임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공정, 연구진행사항 등 현장 확인 방식 	20분	현장
	【 마무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절차 안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Happy Call 진행 절차 ▶ 기술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전화인터뷰 등 ▶ 평가결과 은행 통지 예상일 등 	5분	

□ 현장실사 전 필수 제출자료

- 기술개요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재무제표(3개년)

□ 현장실사 중 주요 Q&A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경영관련	- 사업현황, 경영방침, 주요연혁, 주주현황, 사업장 규모, 부동산 소유현황 등
생산관련	- 생산공정, 주요기계시설, 가동상황, 인력현황 등
재무관련	- 매출추이, 이익추이, 재무주요 계정 등
기술관련 일반	- 기술개발인력, 기술개발실적, 관련 업계동향 등
기술관련 핵심	- 핵심기술의 우위성 및 핵심기술 적용 제품 및 유사제품 등
기술관련 보호	- 특허취득 과정, 기술관련 수상, 인증 등

2 기술신용평가 신뢰도 제고

가. TCB 자체 검수 강화

TCB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체 검증 체계 구축

① 적정 검수조직 구축 및 검수자 실명제 도입

○ (현황) 대부분의 TCB 내 검수기능은 있으나 평가인력이 검수를 겸임함에 따라 평가 업무량 과다 등으로 충실한 검수가 곤란

⇒ (개선) 효율적인 검수가 가능하도록 평가조직과 구분된 검수 조직을 신규 설치하고 책임 검수인력을 배치('15.10월부터)하여

- 「편집 → 적합성 검증」의 2단계 검수절차를 운용

【2단계 검수절차 운용】

- ① (1차 검수, 편집(editing) 기능) 보고서 내 오타자, 문맥의 혼란, 세부 평가등급과 평가의견의 불일치 등 단순 오류를 교정
→ 상설 검수조직이 수행
- ② (2차 검수, 평가 적합성검증(validation) 기능) 핵심 기술의 판정, 평가 주안점, 기술평가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심층 점검
→ 상설 검수조직 또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용

- 평가자의 업무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수인력이 검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 기술신용평가서 표지에 현행 평가자와 동일하게 검수자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를 기재하여 검수에 따른 책임 부여

참 고

기술신용평가 자체 검수 체크리스트

구분	검수 항목	설명
1차 검수	평가의 적정성	가. [기술평가표작성방법]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실무지침을 준수하였는가? 나. 평가자DB, 평가등급, 서술된 의견이 일치하는가? 다. 상기항목에서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근거는 명확한가?
	보고서 완성도	가. 기업개요 및 평가내용 등 기술신용보고서 주요 사항에 오타가 없는가? 나. 평가등급에 적합한 문장전개를 하고 있는가? 기술된 문장의 이해가 용이한가? 다. 보고서 전체의 논리전개가 적절한가?
2차 검수	평가 난이도	가. 평가대상기술이 높은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가? 나. 목표시장 및 산업평가에 높은 수준의 분석역량을 요구하는가?
	평가기술 분석의 적정성	가. 평가대상 기술명이 기업의 핵심역량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나. 기술분석에 활용된 정보의 최신성 및 출처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는가?
	기술역량 분석의 적정성	가. 기업의 보유역량을 정확히 판단했는가? 나. 산업의 특성 및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의 경쟁력을 적절하게 판단했는가?
	목표시장 분석의 적정성	가. 평가대상기술이 목표로 하는 시장이 구체적인가? 나. 시장규모 및 특성정보의 최신성 및 출처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는가? 다. 목표시장내 경쟁업체의 선정이 적절한가?

나. 심층평가 제도 도입

대규모 여신·투융자 복합금융 등에 더욱 면밀한 기술신용평가 실시

○ (현황) 은행의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은 표준평가보다 강화된 기술력 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존재

⇒ (개선) 대규모 여신 등에 대해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보다 면밀한 심층평가를 실시('15.9월부터)

【심층평가 운영 방안】

구 분	KRX 평가	심층평가	표준평가
평가대상	상장특례 지원 기업	금융기관 판단*	일반 여신
평가기간	접수 후 4주	접수 후 3~4주	접수 후 2주
평가자	박사급 주평가자 포함 2명 이상		TCB 내부인력
외부전문가	기술 전문가, 변리사 등 1명 이상		X
기업실사	2회 (현장+별도회의)	1회+@(필요시 보완 실사)	1회
보고서	KRX평가보고서	심층평가 보고서	표준평가보고서
보고서 내용	- TCB표준평가체계와 동일 - 각 세부항목별 상세 기술 - 실사시 기술검증 및 Q&A 강화 - 40~60 페이지	- TCB표준평가체계와 동일 - 각 세부항목별 상세 기술 - 실사시 기술검증 및 Q&A 강화 - 30~40p * KRX평가와 표준평가의 중간 수준	- TCB평가모형에 따른 보고서 체계를 따름 - 요약 의견 및 상세의견 기술 - 20p 내외
수수료	500만원*	200 ~ 250만원	75만원

※ 심층평가 대상(예)

- 일정 금액 이상의 여신 기업
- 투자와 융자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성장가능성이 모호한 경우
 - 경기 민감 업종 대상기업(예시, 건설, 철강, 조선, 해운)
 - 경쟁기술 및 제품대비 차별성과 우위성이 의심되는 경우

Ⅲ. 향후 추진계획 ('15.4분기)

①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 ('15.10월까지)

- 기존 TCB 평가모형을 개량하여 엔젤·VC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

* (기존 TCB) 예상 부도율 평가 vs. (투자형 TCB) 성장가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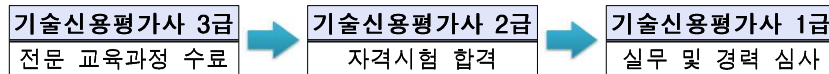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이 연구기관으로 선정·개발 중(산업부 연구용역)

② 기술신용평가사 자격 체계 마련 ('15.11월까지)

- 은행이 필요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기술금융 전문 교육과정과 연계

- 기술신용평가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시 기술신용평가사 작성 역량을 갖추도록 자격체계 구축

【 자격체계 및 부여 방법 】



③ TDB 정보체계 개편 ('15.12월까지)

- 기존 제품 단위 기술정보 중심 DB체계를 기술신용대출 심사·평가에 활용이 용이한 기업 단위 기술정보로 전면 개편

* TDB 체계 개편 용역 진행 중('15.7~12.)

【 TDB 제공 기업 정보(안) 】

기술력정보	분석정보	연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력 - 지식재산권 - 기술인증 - 수상실적 - 연구소보유현황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 *Spider web - 경쟁사현황 - 전후방 산업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DB - 시장DB - 기타DB